

신라 석실분과 순장의 폐지 무덤 속을 넘나들다



1 개요

석실분(石室墳)은 마립간 시기의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과는 다른 양식의 무덤이다. 이전 시기의 무덤은 한 사람만을 위한 무덤(單葬)이고 죽은 이를 무덤 위에서 아래로 넣는 것(豎穴式)이었다. 그러나 석실분은 추가장(追加葬)을 할 수 있는 다장(多葬) 형태를 띠며 무덤의 한쪽 벽에 입구(門)를 만들어 방(室)처럼 드나들 수 있는 구조(橫穴式)로 되어 있다.

석실분은 석실(또는 현실玄室. 죽은 이를 안치하는 방)·문(입구)·연도(羨道:널길)·묘도(墓道:무덤길)로 구성된다. 석실은 장방형·방형이며 벽석은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쌓아 올린다. 이러한 전형적인 석실분은 횡혈식(橫穴式) 석실분이고, 이와 달리 무덤 벽에 입구가 있고 연도가 없는 것이 횡구식(橫口式) 석실분이다. 또 석실분에서 나온 부장품은 이전 시기보다 종류나 양에 있어 적은 편(薄葬)으로 주로 인화문(印花文) 토기와 금귀걸이, 허리띠 장식구, 토용 등이 출토된다.

이러한 석실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덤에 대한 내세 관념의 변화뿐만 아니라 왕경의 정비와 확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작용하였다. 따라서 무덤 입지가 주변 산록으로 이동하고 왕의 무덤 영역과 왕족이나 귀족(신하)의 무덤 영역이 구분되기 시작한다.

2 내세관념의 변화와 왕경의 확장, 그리고 석실분 채용

석실은 신라 왕경인 경주에 석실분이 등장하기 이전인 5세기대에 지방이었던 달성, 경산, 상주지역의 지배자급 무덤에서 먼저 채용되었다. 6세기 초까지도 신라 왕경의 지방이었던 포항, 의성, 안동, 창녕, 양산 지역에서 석실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포항 냉수리 석실분은 신라가 5세기 이후 고구려와의 관계 속에서 동해안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 지역에서 확인한 대형 횡혈식 석실분이다. 지방의 대표적인 석실분인 경산 임당 석실묘는 이전의 암광목곽묘(岩壙木槨墓) 대신 축조되었고, 대가야에 대한 군사적인 거점 지역이었던 창녕 계성리에서도 석실분이 나타난다. 특히 계성리 석실분에서는 5차까지의 추가 장이 이루어졌고 금제태환이식이나 은제팔찌, 은제과대장식 등을 비롯한 화려한 금공품과 토기와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신라는 금관가야와 대가야까지 복속시키고 북으로는 죽령을 넘어 한강 하류, 동해안으로는 원산과 함흥까지 진출하여 영역을 확장하였다. 신라가 진출한 대부분의 지역에 신라 토기와 금공품이 부장된 석실분이 축조된다. 심지어 신라로 편입된 울릉도에서도 횡구식 석실이 축조되고 인화문 토기부터 주름 무늬 토기, 구슬류 등이 출토된다. 이러한 무덤은 그 입지나 크기에 따라 울릉도 위계를 보여준다.

왕경인 경주에서는 적어도 6세기 중엽 무렵에 석실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석실을 채용하면서 무덤의 입지도 평지에서 주변 산지 능선으로 이동하였다. 경주에서 가장 빠른 석실은 횡구식 석실인 황남동 151호와 횡혈식 석실인 보문동합장분이다. 보문동합장분은 적석목곽분과 횡혈식 석실분인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 무덤으로 가장 화려한 누금귀걸이가 나온 것으로 유명하다.

6세기 후반 무렵 신라 왕경인 경주 주변 산지로 분산하여 대형 석실을 축조하기 시작하는데 신라 왕족과 최고 귀족의 무덤으로 알려진 서악동 고분군이 대표적이다. 이 고분군은 왕(왕비)릉으로 추정되는 4기의 대형분이 있는 능선을 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소형분이 에워싸고 있다. 그중에서 서악동 석침총과 동천동 와총은 무덤의 시상대(屍床臺)에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죽은 이를 안치하는 특징이 있다.

신라 횡혈식 석실분은 무덤 형태(장방형, 방형), 무덤 입구 위치(한쪽 벽의 중앙, 왼쪽, 오른쪽)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무덤 안에 죽은 이를 안치하는 시상대의 형태와 두침(頭枕 머리베개)·견대(肩臺 어깨받침돌)·족좌(足座 발받침돌)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석실분에는 유물이 많지 않다. 당시 신라는 영역 확장과 왕경의 정비를 위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했고 불교의 영향으로 무덤 장례가 간소화되었다. 특히 6세기 중엽 이후 신라 토기에 새로운 토기 양식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배는 점점 작아지고 굽다리 대신 굽 받침이 달린 단각고배(短脚高杯)나 합(盒)이 등장하였고 토기 표면의 무늬를 새기는 방법 대신 무늬를 새긴 도장을 표면에 균일하게 찍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도장 무늬(印花文) 토기는 토기 제작 시간이 짧고 표면에 도장무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화려한 느낌을 준다. 인화문은 8세기에 전성기를 이루며 새, 꽃, 구름, 기하학적 무늬 등이 토기 전체를 감싸듯 화려해지고 9세기 이후에 점점 사라진다. 인화문 대신 토기 표면에 주름 무늬가 생겨난다.

3 능묘

본격적으로 신라의 왕릉이 횡혈식 석실분을 채용하면서 능묘(陵墓)로서의 체제를 만들어 나갔다. 통일 이후 신라 왕릉은 많으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부 구조나 출토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신라 왕릉은 왕릉으로 전승되어온 무덤과 왕릉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있으며 그중 피장자를 알 수 있는 왕릉은 무열왕릉, 흥덕왕릉, 원성왕릉(괘릉), 성덕왕릉, 문무왕릉 정도이다. 따라서 왕릉의 외형적인 요소로 변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제26대 진평왕의 왕릉 이후로 선덕여왕릉, 진덕여왕릉은 이전의 군집된 능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능역(陵域)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무열왕릉에서 봉분을 감싸는 호석과 호석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능비(陵碑)와 상석(床石)이 등장한다. 8세기 중엽 성덕왕릉부터는 신라 능묘제도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 호석(護石)은 봉분의 가장자리만을 감싸는 단순한 돌쌓기에서 호석에 괴석을 받침돌로 괴어놓거나 호석의 돌이 판석(板石)으로 바뀌면서 판석과 판석 사이에 탕석(撐石)이 등장한다. 또 호석 주변에 난간석(欄干石), 무덤을 중심으로 십이지신상, 석사자상과 석인상을 세우고 무덤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부여하였다.

십이지신상은 중국이 먼저 받아들여 무덤 내부에 명기(明器)로 부장하였으나 신라는 무덤 내부에 명기로 넣다가 점점 무덤 바깥을 지키는 형태로 변하였다. 십이지신상은 호석인 판석에 부조로 새겨지다가 점점 독립적인 입체 조각상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신라 왕릉의 십이지신상 변천 양상에 따라 무덤의 축조 순서를 파악하기도 한다. 특히 난간석은 중국이나 일본의 왕릉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물로 불교의 영향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십이지신상도 호법신(護法神)의 하나로 왕릉과 불교가 결합된 호국불교의 영향으로 보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또 제38대 원성왕릉에서는 석인상과 더불어 호인상(胡人像)과 화표석(華表石; 신성한 능역임을 알리는 표지석)까지 등장하여 신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러내었다.

이때 완성된 신라 능묘 제도는 제42대 흥덕왕릉까지 적용된다. 그 이후부터 왕릉 규모는 축소되고 상석과 배례 공간만 남고 난간석, 석사자상, 석인상 등이 점점 사라진다. 구정동 방형분에서는 석사자와 호인상만 배치되고 전 진덕여왕릉에서는 십이지신상만 유지되다가 이후 용강동 고분에서는 십이지신상이 명기(또는 土俑)로 성격이 바뀌면서 무덤 내부에 부장된다. 9세기 후반 이후 왕릉 호석의 면석이 사라지고 장대석을 2~4단 정도 쌓는 단순한 호석으로 변한다. 10세기 전반 즈음 점점 장례에 화장(火葬)을 채택하면서 왕릉의 권위를 갖춘 대형 무덤은 사라진다. 그러나 이 시기 통일신라 왕릉의 형태는 고려와 조선 왕릉으로 이어진다.

경주 내에는 왕릉 외에 왕족이나 귀족 무덤으로 추정되는 용강동 석실분과 장산 토우총도 있다. 신라 귀족무덤인 용강동 석실분에서는 인물 토용·말 토용과 청동제십이지신상, 구슬 등과 함께 석제 두침과 견대, 족좌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로 보아 죽은 이를 바로 시상대 위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신덕왕릉으로 추정되는 석실분 벽에는 붉은색과 노란색, 흰색, 푸른색이 채색되어 있기도 하다. 또 서악동에 위치한 장산에서 확인된 토우총의 경우 무덤 안에서 토우가 출토되었고 궁륭식(穹窿式) 천장에 벽에 회칠을 하

였다. 3차 추가장에 4인이 매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 왕릉 외에 특정한 인물의 무덤으로 전해오는 전칭묘(傳稱墓)가 있는데 김후직묘, 김유신묘, 김인문묘, 김양묘 등이 유명하다.

4 잔혹한 권력의 상징인 순장 대신 토용이 등장하다

마립간 시기의 적석목곽분 안에는 엄청난 양의 부장품이 있었으나 추가장이 가능해진 석실분에서는 불교 등의 영향으로 부장품이 간소해졌다. 주로 저승에서의 생활까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넣었던 물건들 대신 일부 죽은 이에게 착장한 것과 일부 공헌품, 실제 물건이나 사람을 작게 본떠 만든 명기로서의 토용이나 십이지용 정도만 부장하였다.

석실 내 죽은 이의 머리 부근에 공헌 유물이 놓이고 신분을 나타내는 허리띠 장식 등의 착장용 유물이 있다. 또 고배나 병 등의 토기류가 부장되는데 이러한 토기는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덤 바닥에 바로 물건을 두거나 제대(祭臺)를 만들어 그 위에 유물을 두기도 한다.

이처럼 후장(厚葬)에서 박장(薄葬)으로의 변화는 사후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서 넣어둔다는 사후관인 계세사상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관념 변화는 무덤의 형태와 유물 부장에 그치지 않고 인물 토용을 부장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즉 502년 지증왕은 순장(殉葬)을 폐지하였다. 불교 내세관의 영향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잔혹하게 사람을 매장시키는 순장에 대한 거부감은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는 관념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순장은 가장 적극적인 후장(厚葬)의 결과물이다. 신라의 순장은 죽은 이를 생전에 모셨던 하인이거나 주변 사람들을 죽여 함께 무덤에 넣는 것으로 인간을 제의의 제물로 희생하는 인생(人牲)과는 다르다. 무덤에 함께 넣기 위해 죽이는 경우는 인순(人殉)이라고 구분한다. 이렇게 순장으로 묻히는 사람이나 동물을 대신하여 그들을 본떠 만든 토용이 등장한다. 토용은 신라 복식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신라는 진덕여왕 대에 김춘추로 하여금 중국 당식(唐式) 의관제(衣冠制)를 도입하게 한다. 신라 복식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경주 황성동이나 용강동 석실분에서 출토된 토용의 복식은 중요한 자료가 된다. 토용은 인물(남성과 여성)과 동물로 구분된다. 남성 인물은 문관상과 무관상으로 나뉘며, 머리에 복두(幞頭)를 쓰고 바지와 외투를 입고 손에는 홀을 든 당의 복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남성 인물상 중에 특이한 모자를 쓰고 눈매가 깊고 코가 큰 호인상(胡人像)도 있다. 여성인물토용의 경우는 한 손에 병을 든 여인은 신라 복식을 입었다고 보여지며, 용강동 석실분에서 나온 여성상은 중국 당의 복식을 입고 있고 크기가 다양하며 복두를 썼으며 채색이 되어 있다. 아마도 크기로 신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 또 토용과 더불어 돌이나 청동으로 만든 십이지용(十二支俑)도 확인된다.